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 상업, 군사’

마키하라 시게유키(도쿄대학)

발표 요지

16세기, 명(明)의 거대한 은(銀) 수요와 일본의 은 증산으로 인해 국제 교역 붐이 일어났다. 도요토미 정권과 만주족의 청조는 이를 기반으로 성립하여 중화를 정복하려고 한 신흥 상업-군사 정권이라는 견해가 정착해 가고 있다. 한편 일본사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석고제(石高制)라는 토지제도, 촌청제(村請制)에 의한 쌀의 연공수취(年貢收取)를 기축으로 한 이른 바 농본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우선 이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도요토미 정권은 기나이(畿内)의 사회, 경제를 기반·기준으로 삼고 당초부터 대륙침공을 표방하여 전국을 통일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이묘(大名)와 가신[給人]을 병력으로 총동원하였고, 백성에게는 병량=연공미(年貢米)를 생산, 공납시켜서 병량, 물자, 금은 등의 교환과 수송을 초닌(町人)에게 맡기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급진적이면서도 집권적으로 사회의 재편성을 추진하였지만, 대륙침공에는 허망하게도 좌절한다.

히데요시의 사후, 정권은 조선에서 철병을 하지만, 이를 지탱해 온 다이묘 상호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合戦)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천하인(天下人)이 되지만, 모든 다이묘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쉽게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오사카의 진(大阪の陣)에서 도요토미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무력 발동을 동결시켜서 전국의 ‘평화’를 실현하였다. 특이한 형태로 체제의 계승과 전환이 진행되었고, 이들 모두가 이후의 오랜 도쿠가와 시대를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본 보고에서는 이상의 변용 과정을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약력

〈마키하라 시게유키(牧原 成征) / Makihara Shigeyuki〉

1994년 도쿄대학(문학부) 졸업, 1999년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후 퇴학, 2003년 博士(文學)을 취득.

현직 :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준교수

전문분야 : 일본근세사(신분제, 토지제도, 유통)

주요 저작 : 『近世の土地制度と在地社會』, 東京大學出版會, 2004. 編著『近世の勸力と商人』, 山川出版社, 2015. 「兵農分離と石高制」, 藤井讓治 외 編, 『岩波講座日本歴史』 제 11 권 近世 1, 岩波書店, 2014.